

원고지 7매입니다.

제품의 기능을 파는 가게

박영숙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이두원하
지난 3월 중순 ^경 한 주간 동안 녹색가게의 원조국인 영국을 다녀오는 기회가 있었다. 런던의 한 변화가에서 한다하는 상점들에 끼여 문을 열고 있는 녹색가게를 지나치면서 영국의 녹색가게의 변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간판이 눈에 띄지 않았다면 녹색가게로 짐작할 수 없으리만큼 쇼윈도의 상품진열이 세련되어 있었다. 9년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대학가나 번민촌 한 구석에 자리하고 있었던 한눈에 알아 볼 수 있었던 재이용품을 싼값으로 사고 파는 녹색가게와는 전혀 다른 하나의 어엿한 상점으로 탈바꿈하고 있었다.

가매
이서익곳이
신상품을 거래하는 상가에 당당하게 녹색가게가 진출 할 수 있는 배경에는 분명 영국소비자들의 소비의식에 어떤 변화가 있으리라는 짐작을 하게 하는 대목이다. 녹색가게의 기본 철학인 제품의 재이용은 일단 생산된 제품은 그 제품이 지니고 있는 기능이 다하기까지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양도해서 쓰여지도록 하는 것이다. 어떤 물품이든 본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한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전제에서이다.

영국의 녹색가게들은 상품의 물질가치이거나 디자인 등의 유행성이 아닌 물품의 기능을 사는 환경친화적인 소비자들을 상대로 변창하고 있는 것이다. 런던거리에서 방문의 기회를 가졌던 의회나 기관들의 사무실에서 느끼고 볼 수 있었던 그 곳 사람들의 사는 분위기에서 그들의 건전한 소비의식을 직접 감지할 수 있었다. 도

YMCA가 녹색가게운동을 전개한 지 벌써 5년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새롭게 정비하여 환경센터로서 자리매김하겠다고 한다. 최근 사람들은 '원스톱'식으로 문제해결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YMCA의 녹색가게가 서로 필요한 물건을 교환하는 곳만이 아닌 환경관련 '원스톱' 해결장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YMCA의 녹색가게운동이 '제품의 기능을 파는 가게' 운동으로서 당당하게 발돋움하면서 소비자에게는 지속가능한 소비양식을 그리고 생산자에게는 지속가능한 생산양식을 실천하게 하여 우리가 사는 세계를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으로 만드는 일에 견인차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